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창작과비평> 40년, 문학과지성사 30년



최성일*

지난겨울 계간지 <창작과비평>과 출판사 문학과지성사가 창간 40주년과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단명하는 잡지와 출판사가 태반인 우리 현실에서 반세기를 바라보는 잡지의 이력이나 사반세기

넘게 지속된 출판사의 사력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긴 세월동안 시련을 겪긴 했지만 잡지와 출판사가 꾸준히 화제작을 산출하고 의미 있는 책을 펴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백년 가까운 연륜을 자랑하는 잡지와 출판사가 적잖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창작과비평> 40년과 문학과지성사 30년은 분명 쾌거다.

순탄치 않은 출판사 대물림

우리나라에 백수(白壽)를 채운 출판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1907년 육당 최남선이 설립한 신문관을 전신으로 하는 동명사는 올해로 백수에 한살을 더하여 100살이 되었다. 동명사의 연륜은 일본의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프랑스의 갈리마르

출판사, 미국의 랜덤하우스 못잖으나, 이들처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출판사로 보긴 어렵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세기 가까이 출판 활동에 진력하는 출판사가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순조롭지 못한 대물림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출판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여부를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일제 강점기에 출범하여 1950년대와 60년대 전성기를 누린 출판사들이 급격하게 몰락한 것은 대물림 과정에서의 내용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숙부와 조카가 출판사 경영권을 놓고 다투어 몰락의 길을 재촉한 정음사가 그 대표적 사례다.

또한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성업하는 기간은 대체로 창업자의 활동기간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시대를 풍미한 출판사들은 서른 안팎에 출판사를 차린 창업자의 여생에 해당하는 30~40년간 활동한다. 여기에는 당대의 지적 조류와 시대적 감수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출판의 속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가 자신의 세대를 커버하는 것만도 벅찬 일이다.

따라서 1960년대와 70년대 세워져 그 이후 각기 일정한 전성기가 있었고 여전히 이른바 메이저로 분류되는 출판사들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 출판평론가, robi@freechal.com

하겠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전략하느냐, 현상 유지냐, 한 단계 도약이냐의. 필자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출판을 둘러싼 객관적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다.

누군가 국내 단행본 출판의 으뜸으로 꼽히는 출판사는 대물림이 순탄하게, 그것도 확대재생산의 행태로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에 대해 '아직은'이라고, 판단은 유력 출판사의 2세 경영인들이 창업자의 슬하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출판사 대물림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떠오른 대안이 주식회사 체제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를 갖췄다 해도 겉모습만 그럴 뿐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체제인 출판사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창작과비평> 수난사

1966년 1월 겨울호로 창간된 <창작과비평>은 강제 폐간과 복간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진보잡지 <파르티잔 리뷰>를 닮은 <창작과비평> 창간호는 국내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또한, 김정색 표지가 독특한 <창작과비평> 영인본은 1970년대와 80년대 의식 있는 젊은이들의 애독서였다.

그런 만큼 <창작과비평>에 대한 당국의 반발도 거셌다. 1970년대와 80년대 <창작과비평>이 정부로부터 받은 퍽박은 출판 탄압의 본보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1980년대 후반까지 공안 검찰의 웬만한 조직사건 발표에는 예외 없이 김정색 표지의 <창작과비평> 영인본이 증거물의 하나로 모습을 드러냈다.

1970년대, 그러니까 유신시대 <창작과비평>은 검열에 의해 내용을 삭제당하기는 다반사였고, 판매금지 조치도 여러 번 내려졌다. 1980년대 들어서 <창작과비평>은 앞 시대와는 사뭇 다른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19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이며 집권한 신군부 세력은 그해 7월 들어 사회정화라는 미명아래 일련의 초법적인 조치들을 실행에 옮긴다. 고위공무원 숙청, 정치인 사정, 과외금지에 이어 172종의 정기간행물을 강제 폐간한다.

이때 강제로 폐간당한 정기간행물은 전체의 12%이고, 유가지는 26.3%나 된다. 잡지계의 양적 피해가 컸지만, 질적 손실은 더 심각했다.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뿌리깊은나무> 같은 당대의 유력지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군부 세력은 부정부패 일소, 외설추방, 사회불안요인 해소 따위를 잡지 대학살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신군부 정권에 대항할만한 비판적인 매체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였다.

5공 정부의 탄압은 <창작과비평>의 강제 폐간에 그치지 않았다. 1985년 10월, 학원자율화 등의 유희국면을 맞아 무크지 형태로 <창작과비평> 통권 57호를 발행하자, 당국은 이를 빌미로 잡지를 펴낸 창작과비평사의 출판등록을 취소하고야 만다. 등록이 취소된 잡지를 무단으로 복간한 것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어겼으므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하지만 민주화 열기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고, 출판사에는 껍셈죄를 발동한 것이 창작과비평사 출판등록 취소사태의 본질이다.

전격적인 출판등록 취소 이후, 그 취소의 취소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를 촉구하는 국내외 각계 인사의 탄원이 잇따랐다. 10여 개의 선언·성명 가운데 범지식인 2,853명의 성명은 규모나 참여자의 면면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결국, 창작과비평사는 이런 움직임들에 힘입어 1986년 8월 등록 취소 8개월 만에 창작사라는 이름으로 출판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는다.

하지만 이것이 <창작과비평>에 대한 탄압의 끝은 아니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1988년 봄호(복간호)로 떳떳하게 부활한 <창작과비평>은 또 한번 시련을 겪는다. 1989년 겨울호에 실린 소설가 황석영의 방북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시영 주간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서 구속되고, 출판사는 압수·수색을 당한다. 출판등록 취소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여론이 비등해지자 이시영 주간이 구속 24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황석영의 글은 이미 시사월간지 <신동아>에 실렸던 것이어서 이적성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내 사법조치를 취했다는 당국의 주장은 법적 형평성마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창작과비평>의 의의와 전망

<창작과비평>은 <창작과비평>의 역사가 곧 계간 잡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 <창작과비평>의

탁월함은 단순히 계간지의 효시라는 차원을 넘어 계간지의 모범을 보인 점에 있다. 정기간행물에서 최초로 시행한 한글가로쓰기, 창간호를 겨울호로 펴내는 서구의 관행 도입, 계간지와 출판사의 접목 등은 <창작과비평> 다음에 나온 거의 모든 계간지들이 따랐던 덕목이다.

게다가 창간호부터 간헐적으로 지면을 차지하던 서평이 1976년 봄호부터 서평란으로 고정편성된 것은 우리 서평문화의 뿌리라고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도 서평 같은 것엔 관심이 없었을 때, 비슷한 주제를 가진 두세 권의 책을 묶어 길지도 짧지도 않은 분량으로 전개한 서평은 그대로 하나의 양식이 되었다. 다만, 책의 내용에 준하는 전공자가 주로 서평을 집필한 까닭에 서평이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낳은 점은 아쉽다. 이제 서평란은 없어지고, 촌평이 서평을 대신한다.

2006년 봄호(통권 131호)는 창간 40주년 기념호로 발매되었다. 창간 40주년 기념호의 머리말에서 백영서 주간은 「운동성 회복으로 혁신하는 창비」를 강조한다.

“혁신의 기본적인 방향은 창간 30주년 당시 내세웠던 대로, ‘한결같되 날로 새로운 잡지’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창비>는 ‘운동성’ 회복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서 운동성이란 일상생활의 타성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일상생활로 돌아가 그 현장에 뿌리내리는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운동의 특성, 곧 힘을 뜻한다. 이미 주류문화의 일부가 되기도 한 <창비> 편집진부터



타성을 떨치고 우리 시대의 요구에 헌신하는 과제 수행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려는 것이다.”

〈창작과비평〉 편집진이 주류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백영서 주간의 지적대로 1970년대와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세력은 이제 우리사회 각 계각층의 관리자로 활약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운동성의 회복’ 보다는 ‘새로운 비전과 전망의 제시’가 선결과제가 아닐까 싶다. 아무튼 백 주간은 “자기쇄신을 거친 진보세력이 제도 안과 밖의 활동을 연동적으로 추진하자는” 운동성의 회복을 제안한다.

“이같은 쇄신은 당연히 계간지 지면에 반영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운동성을 담은 새로운 글쓰기로 구체화될 것이다.〈중략〉 올해부터 〈창비〉는 현실문제에 밀착해 날카롭게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논쟁적 글쓰기의 모범을 보이도록 힘쓸 것이다. 이 일이야말로 문학적 상상력과 현장의 실천경험 및 인문·사회과학적 인식의 결합을 꾀하는 〈창비〉가 남달리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만큼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절감한다.”

그러기에 앞서 서울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편집위원의 구성분포에서 드러나는 〈창작과비평〉의 순혈주의와 귀족주의를 먼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의 〈창작과비평〉은 나 같은 독자에게 문턱이 높은 잡지다.

문학과지성사 30년

문학과지성사는 2005년 12월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권오룡·성민엽·정과리·홍정선이 엮은 『문학과지성사 30년 1975~2005』(문학과지성사, 2005)는 자사의 30회 생일을 자축하는 책이다. 문학과지성사의 탄생에는 정부가 적잖이 ‘기여’했다. “문학과지성사는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1975년의 암담한 상황 - 인용자) 계간 〈문학과지성〉 동인의 한 사람이 언론 탄압에 저항하다가 사회적 추방을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설립되었다.”

문학과지성사 30년 사사(社史) ‘발간사’에 언뜻 비친 출판사의 태동 배경을, 김주연은 「문학과지성사의 출범과 70년대」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그는 동아일보 해직 기자였다. 유신 이후 날로 그 탄압의 도를 더해가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장을 맡고 있던 그를 소속사인 동아일보사는 해임하였고, 그는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다. 아직 창창한 30대 중반이었다. 김병익의 이러한 상황 변화가 문학과지성사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였다. 말하자면 그에게 실질적인 일을 주기 위해서도 이제 〈문학과지성〉은 정식 회사를 통해 자립해야 했던 것이다.”

문학과지성사 30년 사사의 첫머리에는 홍정선이 「‘문학과지성’ 30년, 그 흐름의 대강」을 짚은 글이 놓여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문학과지성사’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초기 간행물의 상업적 성공을 배경으로 1년이 채 되기 전에 최인훈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전집을 간행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1976년 2월에 처음으로 간행한 책이 홍성원의 『주말여행』과 조혜일의 『겨울여자』인데, 이 중 후자가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낸 황순원의 『탈 기타(其他)』, 이기백과 차하순이 편한 『역사란 무엇인가』, 동인들이 편집한 『문학이란 무엇인가』, 정문길의 『소외론 연구』등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출판사의 조기 정착에 기여했다.”

눈길 잡는 사사의 권말부록

문학과지성사 정착기의 출판물로 1978년 출간된 조세희 연작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하 『난쏘공』)을 빼놓을 수 없다. 간행 30년이 임박한 『난쏘공』은 지금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 있는 베스트한 스테디셀러다. 1996년 『난쏘공』은 1976년에 ‘최인훈 전집’으로 문학과지성사에 정착한 최인훈의 『광장』과 함께 100쇄를 돌파하기도 했다. 100쇄에 이르는 동안 『난쏘공』은 40만 8,300부를, 『광장』은 28만 700부를 찍었다. 『난쏘공』은 2000년부터 이성과힘으로 발행처를 옮기고 나서도 쇄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 2002년 150쇄를 기록하고, 2005년 200쇄를 넘어섰다.

한편, 홍정선은 <문학과지성>의 강제폐간이라는 “유신 시대보다 더 엄혹해진 출판 환경에 직면해서 ‘문학과지성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본의 경우 검열을 피하기 쉬운 역사서와 외국 저서를 통해 계몽과 비판적 의식의 확대를 추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출간 전략을 마련했다”고 덧붙인다.

“1981년 여름 서광선 교수가 번역한 피터 버거의 『이단의 시대』와 김병익이 번역한 휴즈의 『현대 프랑스 지성사』로부터 시작되는 ‘현대의 지성’ 시리즈와, 1982년 가을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이념과 문학』, 빅토르 어얼리치의 『러시아 형식주의』의 번역으로 나타나는 ‘현대의 문학 이론’ 시리즈, 그리고 계급 민중 민족 혁명 등 당대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핵심어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천착하기 위해 1984년 가을에 시작한 ‘문제와 시각’ 총서 등은 바로 그러한 전략의 소산이었다.”

『문학과지성사 30년 1975~2005』의 권말부록 ‘주식회사 문학과지성사 창립(1993년) 정관’은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문학과지성사는 1인 지배체제에서 탈피한 하나뿐인 출판사라해도 과언은 아니다. ㉞